

본질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 월인 |

우리는 본성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만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본성이 아닙니다. 바다는 결코 바다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파도'일 뿐입니다. '부분'만이 경험됩니다. 부분만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부분'만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분이 아닌 전체, '전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오직 그 본질 자체를 어떻게 경험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억지를 부려 표현해낸들 그 말을 듣고 우리의 지성은 본질을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기신론의 어떤 말들은 언뜻 깊은 통찰들을 보여줍니다(편집자 주).



〈원효의 소疏〉

夫大乘之爲體也. 蕭焉空寂. 湛爾冲玄. 玄之又玄之, 豈出萬
부 대 승 지 위 체 야 소 언 공 적 담 이 충 현 현 지 우 현 지 기 출 만
像之表. 寂之又寂之, 猶在百家之談.
상 지 표 적 지 우 적 지 유 재 백 가 지 담

무릇 대승의 본체라는 것은 고요하고 텅 비고 적막하며, 깊고 총일하다. 그것은 깊고 또 깊지만, 아무리 깊고 깊다고 하더라도 만상이 드러나는 표면을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적막하고 또 적막하지만, 오히려 백가의 가르침 속에 있다.

대승이라는 본체의 텅 비어있음은, 꼭 찻다는 것의 반대로서의 비어있음이 아니라, 충만한 비어있음입니다. 그래서 담이충현(湛爾冲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어있고(冲) 심도 깊다(玄)는 것이죠. 성경에서 ‘흑암이 천지를 운행할 때’라고 표현했듯이 그런 깊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다고 하더라도 어찌 만상이 드러나는 표면인 현상을 벗어나서 본질이 있겠냐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번뇌 즉 보리’라는 뜻입니다. 번뇌가 없다면 과연 어떻게 ‘평안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평안한 마음’이란 ‘괴롭고 불편한 마음’에 대비되는 마음입니다. 불편한 마음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면 평안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겠지요.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들의 의타성(依他性)입니다. 그와같이 번뇌(煩惱)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곳에는 보리(菩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번뇌 속에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번뇌에 반응하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그 반응을 ‘느끼’는 ‘본질’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번뇌에 반응하는 현상이 없다면 본질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느낌이 없으면 느낌이 일어나는 바탕도 파악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



탕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느낌’은 일종의 벡터vector입니다. ‘방향을 가진 힘’이라는 것이지요. 무언가 마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 사과를 아스팔트에 떨어뜨렸더니 동서남북 여러 조각의 파편으로 깨졌습니다. 이때 깨어져 나간 조각들은 여러 방향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움직여 나갑니다. 예를 들어 동쪽으로 +4, 서쪽으로 -4, 북쪽으로 +6, 남쪽으로 -6의 힘으로 퍼져나갔다고 해봅시다. 이때 모든 조각들을 벡터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각들의 힘과 방향을 다시 취합하면 사과가 깨지기 이전, 아무런 힘도 생겨나기 이전인 0으로 돌아옵니다. 즉 사과에서 떨어져나가는 어떤 ‘힘’도 없는 상태, 무無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의 상태는 깨지기 전의 사과나, 깨진 후 모든 방향으로 퍼져가는 조각의 힘을 합한 사과나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사과는 깨진 후에도 이미 전체적으로는 무無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송은 자꾸 깨지기 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대승은 깨진 사과도 이미 무無임을 알아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상이 아무리 깨어져도 우리의 본질은 한치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깨지기 전에는 결코 ‘어떤 방향의 힘’을 가진 한 조각의 상을 ‘알’ 수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부분으로 깨어져 나간 현

상 속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깨지고 나면 조각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조각이 없는 상태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즉 흰색 도화지 위에 아무리 많은 그림을 흰색으로 그린다 해도 보이지 않지만, 흰색과 대비되는 다른 색으로 그리면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본질을 직접적으로 알려고 한다는 것은, 흰색 도화지 위에 흰색으로 무언가를 그리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이라는 것은 대비되는 무엇입니다. 그렇기에 결국은 알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현상을 통해서 드디어 본질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은 결코 ‘현상을 벗어날 수 없다(豈出萬像之表)’는 말입니다.

백가百家는 수많은 논리가와 연설가들을 말합니다. 유교儒敎도 사실 이런 가家 중에 하나였는데, 공자가 큰 세력을 키우고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어 유교가 된 것입니다. 목자, 맹자, 노자, 장자 등 자자가 붙은 동양 고대의 사상가와 현인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제자가 많고 세력이 커졌다면 그들의 가르침도 敎敎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가 현실 정치에 가장 잘 맞아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 세력이 커지게 되었고, 敎敎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의 교리를 취사선택하여 결정된 것이죠. 불교佛敎도 기원전 270년 경 아소카 왕이 현실정치의 이점을 위해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흥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와 현상적인 삶에 도움이 되도록 이 종교들이 쓰였기 때문에 현실세계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본질이라는 것도 결국은 드러난 현상인 백가百家의 담談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원효의 소疏〉

引之於有, 一如用之而空. 獲之於無, 萬物乘之而生. 不知何
인 지 어 유 일 여 용 지 이 공 획 지 어 무 만 물 승 지 이 생 부 지 하

以言之, 强號之謂大乘.
이 언 지 강 호 지 위 대 승

그것을 유有에 포함시키려 하면 진여도 이를 써서 공하고, 무無에 두려고 하면 만물이 이를 타고 생성되니, 무엇이랴 말해야 할지 몰라서 억지로 대승이라 이름하였다.

유有에 포함시키려 한다는 것은 ‘있음’과 ‘없음’ 중, 있음에 속한다고 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대승의 본질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현상이든 무엇이든 어쨌든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려고 해보니, 일여용지이공一如用之而空한다 했습니다. 일여一如는 진리를 뜻하는 것으로 진여眞如라고도 합니다. 용지用之란 ‘쓰다’는 뜻이죠. 진여, 즉 본질은 쓰여지지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타난 모든 것은 본질이 아니라 현상現像이지요. 본질은 이렇게 다만 현상에 쓰일 뿐이기에 용지用之라고 표현했습니다. ‘쓰이는 모습’(현상)은 있지만 그 자체가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공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승이라는 것은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물으니, 그러나 그것이 쓰이긴 하지만 항상 텅 비어있어서 잡을 수 없으니,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것을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려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의 근원을 타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있다’고 하려니 늘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하려니 만물이 여기서 생겨나므로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승大乘이라는 말은 단

순히 큰 수레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이름붙일 수 없어서 그냥 억지로 갖다 붙인 ‘근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름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 ‘기능’으로 봐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좋다는 의미에서, 만물을 진리와 고통 없는 곳으로 실어 나르는 큰 수레인 ‘대승’이라고 이름붙인 것뿐입니다.

대승의 진정한 의미는 우주 만상에 흐르는 생명의 힘이고, 의식의 근본이며, 보살도의 본체입니다. 승조법사는 ‘모든 움직임 속에서 고요함을 구해야 한다(必求靜於諸動).’고 말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고요는 반쪽의 고요입니다. 그러나 움직임 속의 고요는 불이不二, 즉 전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고요와 움직임이 들어아닙니다. 나와 대상도 들어아닙니다. 둘 다 의식의 본 바탕에서 피어나는, 마음이라는 바탕 속에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그 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움직임과 고요, 보리와 번뇌, 나와 대상, 이 모두가 ‘하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열현상이며, 그로 인해 보이는 구별된 모습일 뿐, 여전히 ‘한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보이는 모든 대상은 사실 마음속에서 분별되는 감지¹⁾感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감지연습을 철저하게 하면 “내가 지금 마음속 매트릭스 안에 들어와 있구나.”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1) 감지感知 : 깨어있기 용어, ‘익숙하다’, ‘안다’는 느낌.

감각된 것이 흔적을 남겨 내면에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통해 외부의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 내적인 기준으로 인해 느껴지는 ‘익숙한’ 느낌이 감지이며 이것은 일종의 미세한 기억입니다. 이때부터 사물은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면에 쌓인 것을 통해 ‘보는’ 능동적 대상이 됩니다. 즉,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쌓인 것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1. 인연분因緣分

이제 드디어 대승기신론의 첫 번째 장인 인연분因緣分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장인 인연분에서는 마명馬鳴(Ashvaghosa)이 이 글을 지은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원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問曰，有何因緣而造此論。
문왈 유하인연이조차론

答曰，是因緣有八種。
답왈 시인연유팔종

云何爲八。
운하위팔

一者，因緣總相。所謂爲令衆生離一切苦，得究竟樂，非求世
일자 인연총상 소위위령중생리일체고 득구경락 비구세

間名利恭敬故。
간명리공경고

물기를, 어떤 인연으로 논을 지었는가?

답하기를, 그 인연에는 8가지가 있다.

여덟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인연총상因緣總相으로,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의 고통을 벗어나 궁극의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지, 세상의 명리와 공경을 얻기 위함이 아니요.

이 글을 지은 인연에는 여덟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가 인연총상입니다. 총상總相이라는 것은 통합된 하나의 상相을 말합니다. 중생²⁾으로 하여금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궁극의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 이 글을 지은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뒤에 나오는 나머지 이유는 이 첫 번째 이유를 위한 보조 설명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취하거나 우리

2) 중생이라고 하면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말함.

름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수많은 중생들이 고통을 벗어나 궁극의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 바로 이 글을 쓰게 된 인연총상입니다.

중생들의 고통을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물론 마명이 말한 것을 해석한 것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죠. 바로 분단생사分段生死와 변역생사變易生死입니다. 분단은 나눌 분분에 구분 단段이고, 변역은 변할 변變에 바꿀 역易입니다.

분단分段이란 분별한다는 의미로, 분한分限과 형단形段을 뜻합니다. 항상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계가 생겨나는데, 분단이란 어떤 형태의 한계를 지녔다는 말입니다. 이는 가상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 분단은 한계와 형태를 지닌 분열分裂을 뜻합니다. 마음의 분단의 최초 모습이 바로 '나와 대상'이라는 내적인 분열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사실 아무런 분열과 분단이 없는데, 우리 마음이 그 세상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기 위하여 나와 대상으로 나누어 '마음의 장'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개별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에 경험되는 분단을 기반으로 그 나누어진 것들이 투사投射되어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분열을 기반으로 '안다'는 현상, '느낀다'는 현상, 기타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모두 일어납니다. 기쁨을 생각해보세요. 기쁨도 분열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나는 한 달에 오백만원을 벌어야 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천만 원을 벌게 되면 기쁘겠죠? 그런데 백만 원밖에 못 벌면 슬플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자리 잡은 '나와 동일시된 마음의 형태'와 '그것에 반하거나 일치하여 일어나는 외적으로 해석된 상황'이 부딪힘으로써 모든 감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죠? '나'라는 것이 없는 곳에서는 '안다'는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가 없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나’가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없기에 안다고 주장하거나 부딪힘이 없습니다. 물론 감각적인 얇인 ‘경험’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감각적인 기준’이 무의식적인 ‘나’로 작용하여 생기는 경험입니다. 감각적인 기준마저 없다면 지렁이가 꿈틀 하는 것과 같은 ‘반응’도 없을 것입니다.

그와같이 의식적으로 느낀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는 곳, 즉 ‘나’라고 여겨지는 주체감이 없는 곳에 ‘대상’이라는 ‘느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체의 고통은 바로 이 분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단생사分段生死, 즉 분단으로 인하여 생사生死라는 구별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로 인해 일체의 번뇌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변역생사變易生死의 고통이라고 할 때 변역變易이란, 변하고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도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변화야말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도약의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은 새롭게 유지된다고 말이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고 말지요. 그같이 많은 고통들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에 일어납니다. 또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쌓인 경험의 흔적을 ‘나’와 동일시하게 되었고, 그 동일시된 흔적이 스스로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를 유지하려는 힘을 갖고 태어납니다. 아리조나 대학의 두 과학자 게리 슈왈츠와 린다 러섹은, 우주의 만물이 살아있으며 그것은 아원자에서 광대무변한 우주까지, 세포와 심지어 ‘생각에서 영적인 기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동적인 시스템은 살아있으며 진화해간다는 생명계 이론을 과학

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쌓인 과거 ‘경험의 흔적들’ 역시 생겨난 이후부터 스스로를 유지하려는 힘을 갖고 진화해 나가게 됩니다. 이 힘은 존재의 기본 법칙이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 아닙니까? 어떤 존재가 매 순간, 매 찰나 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존재한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탁자가 매 순간 여러 형태로 변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탁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변화하지 않으려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죠. 우리는 ‘경험된 흔적’을 고정된 ‘나’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따라서 그 유지하려는 힘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에서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변하고 바뀌는 것은 ‘나’를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한편, 변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당하다가 사라질 운명에 처하기에 우리는 또 변화에 적응하려고 애씁니다. 삶이란 어찌 보면 무한히 파도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균형 잡기 위해 애쓰는 움직임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살아있음의 기본적인 형태이기도 하죠. 살아있음과 괴로움은 그래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이란 고통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苦海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을 수반하고 있어요. 필연적으로 고통의 씨앗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는 고통의 씨앗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가 본 것은 바로 그 ‘누가’ 없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고집할 때 고통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에게 삶은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나’라는 것이 ‘현재’ 속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

는, ‘임시적인 기능’을 하는 일시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되면,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 기능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살아가는 자’는 없고 ‘삶’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가 허상虛像임을 본 사람의 삶이며,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머물 없이 마음을 내어 쓰는 것(應無所住 而生其心)’입니다. 어딘가에 머물며 그것을 자기라고 여기는 마음이, 변화의 흐름을 괴롭게 여기게 하고, 삶을 고택으로 만듭니다. 마명이 대승기신론을 지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생이 일체고一切苦를 떠나게 하기 위함인데, 그 일체 고택의 원인이 바로 분단생사分段生死와 변역생사變易生死이고, 이것의 가장 기본은 ‘나’와 ‘대상’을 나누어 ‘나’를 고정된 무엇으로 여기며 거기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궁극의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궁극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구경락究竟樂이라고 했습니다. 구경究竟은 궁극의, 최고의, 최후의, 맨 마지막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즐거움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 이상이면 기분이 좋고, 어떤 기준 이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모두 어떤 조건하의 즐거움입니다. 기준이 되는 조건이 없다면 기분 좋은 느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선 육체적인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몸에 포도당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단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배고픔이라는 조건이 충족된 것이죠. 이미 배가 충분히 불러 만족하고 있는데 또 먹게 되면 별로 기

분이 좋지 않아요. 중생들, 즉 보통 사람들은 모두들 자기 기준을 충족할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일반적인 즐거움은 그 이면에 항상 고통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어요. 첫째, 즐거운 것을 얻지 못하고 충족시키지 못해 느끼는 고통이 있습니다. 둘째, 마침내 즐거움을 느끼게 된 후에는 “다시는 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어쩌나”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생겨나는 고통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궁극의 즐거움이란 그런 조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즐거움 이전에 있는 절대적인 즐거움을 뜻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즐거운 것이죠. 일반적인 즐거움에는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정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또한 괴로움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도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이 궁극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유 없는 즐거움’은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즐거움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늘 존재 그 상태가 즐거운 것, 그것이 지복至福입니다. 지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즐거움의 느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즐거움과 똑같이 다뤄서는 안 될 절대적인 즐거움이죠. 마명은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궁극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대승기신론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조건적인 고통을 떠나 궁극적인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인연총상因緣總相, 즉 대승기신론을 지은 인因(내적인 원인)과 연緣(외적인 원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二者，爲欲解釋如來根本之義，令諸衆生正解不謬故。
 이자 위 욱 해석 여 래 근본 지 의 령 계 중 생 정 해 불 류 고

둘째는 여래의 근본 뜻을 해석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불명료한 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하기 위함ियो.

여래의 근본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해석분에서는 현시정의顯示正義(올바른 뜻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함)와 대치사집對治邪執(삳된 집착을 다스리기 위함)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현시정의顯示正義에서 가장 중요한, 여래의 근본 뜻을 나타내는 것은 일심이문一心二門입니다. 일심이문一心二門이란 “두 개의 문이 모두 하나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라는 뜻으로, 심진여문心眞如門(마음이 곧 진여다)과 심생멸문心生滅門(마음은 생멸하는 것이다)이 모두 일심一心이라는 말입니다. 심진여문은 ‘마음이 곧 참나’, ‘우리의 마음 즉, 평상심平常心이 곧 도道’라는 뜻입니다. 심생멸문은 마음의 근본이 곧 생멸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생멸하는 마음은 생각에 휘둘리고, 감정에 끌리려고, 느낌에 좌우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생멸하는 마음이 변함없는 근본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소승小乘은 생멸하는 마음을 떠나 변하지 않는 진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대승은 ‘중생심이 곧 진여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심진여문을 ‘추구’하는 소승이, 진정한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점차 ‘진여와 생멸이 다르지 않은’ 대승에 이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진여와 생멸을 ‘나누는’ 마음이, 도리어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놓고 ‘추구’하고 있는 ‘분리 속에’ 마음을 머물게 하며, 그 분리에 머무는 한은 결코 진여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생심은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에 대한 근본 뜻을 해석분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대치사집對治邪執은 삳되고 잘못된 집착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들 ‘무아無我’라 말하고, ‘마음은 텅 빈 공공과 같다’라고 하는데, 대치사집에서는 이런 견해 역시 잘못된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집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인아

견人我見과 법아견法我見이 그것입니다. 인아견은 사람에게 주체로서의 ‘나’가 있다는 견해이고, 법아견은 법이라는 실체, 법의 ‘나’가 있다는 견해인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샅된 집착입니다.

인아견人我見은 범부들이 믿고 있는 것인데, 그를 넘어서기 위해 경전에서는 ‘여래의 본성이 텅 빈 허공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설명하기 위한方便일 뿐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흔히 불교에서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것은方便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은 텅 빈 허공과 같다’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은 ‘텅 빈 마음’이라는 상相을 붙잡습니다. 우리 마음은 순수 의식이 라는 상相도 잡아요. 순수 의식, 텅 빈 허공, 빈 마음, 무無, 이런 말들은 생멸하는 끝없는 현상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현상이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方便으로 쓰는 말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췌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상相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생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 해석분에서는 ‘허공상虛空相도 망법妄法이다’라고 말합니다. ‘허공의 상이라는 것도 마음에 생멸을 일으킨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생멸하는 마음은 분열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분열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허공상은 허공이 아닌 상과 짝을 지어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이렇게 분열은 마음에 있지 자연에 있지 않으므로 색色과 공췌이라는 것도 자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연에는 색도 없고 공도 없어요. 모든 생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볼 뿐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서 모두 설명하면 해석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아견法我見 즉, ‘법에 내가 있다’는 견해도 일종의 잘못된 집착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대승기신론을 지었

다고 합니다. 인무아人無我(사람에게는 ‘나’가 없다)를 통해 무아無我를 설명하였지 궁극의 것을 설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궁극은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띠 네띠neti neti(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³⁾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타난’ ‘현상’을 모두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현상을 다 제거하면 이제 궁극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렇다 해서 그것이 어떤 ‘자리’는 아니며 ‘알 수 있는 자리’도 아니기에 궁극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줄 수도 없고, 맛보게 할 수도 없고 경험시켜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무아人無我만을 가지고 궁극의 것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궁극을 위해서 다시 열반을 추구하게 되는데, 실상은 열반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열반은 일종의 말일 뿐이지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열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열반은 생멸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생멸자체가 허구이기 때문에 열반도 허구일 수밖에 없음을 범아견法我見에서 말합니다. 생멸이 허구라는 것과, 그렇게 생멸이 실제하지 않으므로 열반 또한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할 뿐, 열반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대치사집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치사집의 두 가지, 그릇된 ‘집착을 버리게’ 하는 논설입니다. 인연분의 말만 설명하면 전혀 와 닿지 않을 수 있기에 전반적인 개요만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해석분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3) 네띠 네띠 : 인도의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말로 지혜의 요가와 불이론에서 범아일여로 가기 위한 명상 수행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문구이다. 그 뜻은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다’ 로 마음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부정하며 본질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三者, 爲令善根成熟衆生, 於摩訶衍法堪任不退信故.
삼자 위령선근성숙중생 어마하연법감임불퇴신고

셋째는 선근善根이 성숙한 중생으로 하여금 대승법大乘법을
감당함에 있어 불퇴전不退轉의 신심을 얻게 하기 위함ियो.

대승기신론을 지은 세 번째 이유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불퇴전의
믿음을 가진 선근의 중생이 도에 발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
함이라고 말하며, 그런 선근의 중생이 취하는 마음 세 가지를 설명합
니다.

선근의 중생이란 아주 깊은 지성과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분을 보고 즉각적으로 발심해서 불퇴전의 신심信
심을 일으킨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상근기上根機라고 표현하죠. 그 뿌
리가 깊고 고도로 발달된 지성을 갖춘 사람은 대승법大乘법을 받아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서 즉각 발취도상發就途上합니다. 대승의 법을
듣고서 마음을 일으켜 도를 향하여 추구해나가는 힘이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 그리고 지성이 예리해서 자기 이익이 아니라, 결정적인 본
질을 향해 발심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선근의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런 사람이 취하는 형태의 마음에는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 해행발심解
行發心, 증발심證發心이 있습니다. 신성취발심은 믿음(信)이 성취成就되
어 발심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그 중에는 진여법을 바로 보는 직
심直心이 있습니다. 이상한 초능력이나 신기함, 자기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지 않고, 본질로 직접 들어가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 일체의 선행을 좋아하는 심심深心, 모든 이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대비심大悲心, 이런 것들이 신성취발심이고, 그 외에 행동하는 발
심(解行發心)과 증득하는 발심(證發心)이 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석

분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강의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깨어있기 워크숍을 들은 오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 분해한 글입니다. 그런데 제목 '대승기신론'에 믿을 신념 자가 붙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통해 알아채진 '깨달음'이라는 것마저도 표현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불교의 이 '혁명적인 선언'을 즐겨 읽어주십시오. 그러하기에 '깨달은 개인'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 모두는 우주적 불이불二的 의식 안에 펼쳐지는 '현상'임을...

저자 | **월인越因 이원규** | 미내사클럽 대표, 격월간 <지금여기> 발행인. '깨어있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찰력게임'을 보급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2009), 《관성을 넘어가기-감정의 대해부》(2013), 《죽음 속에도 봄이 넘쳐나네》(2008), 《주역-심층의식의로의 대항해》(2009)가 있다.

월인越因은 '인연을 넘어서'라는 뜻이다. 이 세상 만물과 우리 내면은 모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인연법칙의 소산이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다. 그 어느 것도 변함없는 제1원인인 것은 없다. 우스펜스키의 말대로 '미지未知가 미지를 정의하는' 현상일 뿐. 그것은 외부 물질세계와 내부 정신세계를 망라하여 모두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의존하는 '인연'의 '뿌리 없음'을 보면 이제 인연을 넘어서게 된다. 인연의 파도를 넘어서 그곳에 근원의 물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모양은 이런 저런 파도로 가득하지만 모양을 넘어서 그곳엔 오직 아무런 모양도 없는 '물'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이 인연의 세계를 넘어서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월인越因이라 이름하였다. 그 인연의 세계를 넘어 있는 곳을 향하여...